

# 극락강역으로 예술여행...문화피서 즐겨요

## 문화있는날

광주 곳곳 29일 행사 풍성  
 팝페라 그룹 뮤탐보이스 공연  
 '1930양림살롱'연극·사진전  
 광산문화회관 '재즈인 시네마'  
 이정래 작가 '동양화 이야기'



'1930양림살롱'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



'뮤탐보이스'(왼쪽부터 메조 소프라노 장주은·비리톤 최교성·소프라노 박성경·플루트 김웅)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29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먼저 광주문화재단은 29일 오후 7시 30분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뮤탐보이스 '한 여름 밤의 꿈' 공연을 선보인다. 팝페라 그룹 뮤탐보이스는 이번 공연에서 디즈니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친근한 음악을 골라 관객에 다가간다. 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객석 일부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며 관객에게 공연 뒤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943.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1930양림살롱'은 20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행사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아트플리곤'에서는 양림동처럼 근대골목을 간직한 대구 북성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사진전 '골목: 나만의 케렌시아'를 열고 작가와 대화시간도 갖는다.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 공연 뒤에는 배우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강하미술관에서는 '미스터 노바디 살롱'을 열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을 보고 각자의 해석을 나눈다. 양림동 곳곳의 미술관과 카페에서는 재즈밴드 '무드리스트', 가야금 연주자 최지혜, 보컬그룹 '티보이스'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오웬기념각에서는 무성영화 '싸움왕 버틀러'를 보여 연주를 즐긴다. 이밖에 '양림달빛투어', '양림홀리마켓', '모던의상대어' 등이 진행된다. 문의 070-4239-5040.

영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필름점거장'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 광주시 광산구 극락강역으로 영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며 출발한다. 관객들은 기차에서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으며 공연을 보고 극락강역으로부터 역에 숨은 이야기를 듣는다. 흑백사진을 찍고 추억이 담긴 VHS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번 달 상영작은 프랑스 코미디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다. 관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DJ 프로그램과 여성 2인조 '원보틀'의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366-1895.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후 7시 30분 '광산하우스콘서트' 28번째로 '재즈인 시네마'를 무대에 올린다. 15년 동안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기존 음악을 재해석해온 '강준욱 재즈퀸텟'이 한국인에게 사랑받은 영화음악을 연주한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히사이시 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 에페이' 주제곡 '러브 에페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과 재즈의 협연도 기다리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960-8833.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오전 11시 열리는 'ACC 브런치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가수 하림을 만난다.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하림의 동요, 클래식이 되다'를 주제로 클래식과 동요를 넘나드는 감성으로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긴다. 드뷔시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와 동요 '과수원길', '섬집아가' 등을 협연한다. 관람료 1만~2만5000원. 문의 1899-5566.

광주시 동구 대의동 은암미술관에서는 한국화가 이정래 작가가 '동양화에 나타난 이야기 산책'을 진행한다. 동양화 중 '화조풍월'과 '매난국죽' 속에 담긴 설화를 들려주며 동양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여름밤 강렬한 탱고 매력에 빠지다

### 라 벤타나 29일 광주문화회관

강렬한 탱고가 광주의 한 여름 밤을 울린다. 한국 대표 탱고밴드 '라 벤타나'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하나로 '한 여름 밤의 탱고' 공연을 갖는다. 아코디언 연주자 정태호씨가 이끄는 라 벤타나는 피아니스트 박영기, 베이시스트 황정규, 드러머 정승원으로 구성된 2006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폭발적인 연주와 기존 음악에 대한 다채롭고 즉흥적인 해석으로 탱고의 매력을 무대에서 전파해왔다. 라 벤타나의 1집은 이들이 속한 에반스뮤직의 대

표음반으로 남았으며, 2010년 나온 두 번째 앨범은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2010년과 지난해에는 실력과 뮤지션을 발굴·지원하는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2013년 발매한 3집에는 김경주 시인과 재즈 가수 송산, 박성연, 이정란 그리고 십센치가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 벤타나의 자작곡인 'Tu Carta'와 탱고의 전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명곡 'Invierno Porteno',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 '포르 우나 카베사' 등 10여 곡을 들려준다. 전석 2만원(청소년 1만원). 문의 062-613-82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탱고밴드 '라 벤타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 대학시절 모티브...언론학자가 쓴 '자전적 실연소설'

###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장편 '눈 속에 핀 꽃' 펴내

일흔이 넘어 늦깎이 소설가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학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김 교수는 최근 두 번째 소설 '눈 속에 핀 꽃' (중앙 books)을 펴냈다. 지난 2013년 금강벽화를 그린 고구려 승려화가 담장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을 펴낸 지 5년 만에 새 장편을 발간한 것.

"이번 작품은 '내 자전적 실연소설'입니다. 대학시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상상력을 가미해 소설로 완성했어요."

작품은 대학(고려대)에 입학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다. 당시 젊은 청춘들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역동적인 시대상이 담겨 있다. 1967년 박정희 정부의 3선개헌과 이에 대한 반대 시위 등 당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소설의 기본 줄거리는 청춘 남녀의 사랑이다. 영운과 윤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좀체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 가난한 영운과 달리 윤희는 부잣집 딸이다. 그러는 사이 영운은 자신의 친구가 윤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만

윤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만다.

일면 간단해 보이는 서사이지만 이를 풀어내는 문체는 감성적이며 정갈하다. "오랫동안 언론학자로 살아왔지만 내면에는 작가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말에서 그의 문학적 열망과 자질이 가늠된다.

"원래 저는 기자와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그러나 대학 때 3선개헌 반대 시위 등 시대적 격랑에 휩싸이다 보니 언론계로 진출하지 못했죠. 마음에는 늘 현장을 누



비는 기자에 대한 꿈, 그리고 기자를 그만 두고는 창작을 하는 꿈을 꿔지요."

이번 소설이 단순한 창작에 대한 의지보다는 오랫동안 키워왔던 작가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결실로 다가오는 이유다. 작품은 36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도 만만치 않다.

김 교수의 대학 동기인 김춘 작가는 "20대로 지나는 지식인의 청춘 회고록이다. 이 소설에는 사랑, 혁명, 배움을 동시에 모두 이루어내려고 현실의 절벽에 몸을 부딪치는 젊은이들이 등장한다"고 평했다.

또한 임권택 영화감독은 "실연이 애잔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련하면서도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은 소설을 흠뻑 적시는 그 몰스러움 덕분일 것"이라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대구 극단 교류 공연 펼친다

### 극단 '청춘'·'고도' 참여

광주와 대구 연극단체가 만나 교류 공연을 펼친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청춘'과 대구 '고도'는 오는 30일부터 9월15일까지 '달빛 연극 프로젝트-PLAY 광대 2018'을 진행한다. 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공연하고 워크숍을 열어 교류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광주 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등에서 연극 '안녕, 다은아'를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대구 작가 김하나씨의 작품으로 극단 청춘이 대구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며

연기한다.

오설균씨가 연출하고 김은미, 박유정, 김민성, 현지우, 김지민이 출연한다.

한편 9월6-8일 광주 작가 양태훈씨의 연극 '납치'를 대구 극단 '고도'가 광주에서 공연한다. 8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배우로부터 광주·대구지역 사투리 연기를 직접 듣고 따라해 보는 무료 워크숍이 열린다. 숙련된 배우들의 사투리 연기를 배우고 싶은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두 극단은 같은 달 13-15일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합동 공연으로 호흡을 맞춘다. 전석 2만원(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62-430-52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중흥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캐트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